

2022학년도 성공적인
수능 준비를 위한

6모 분석 자료집

이 인 이 가 감 사 트

I

오답률 분석

오답률 TOP 10 - 화법과 작문 응시 기준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17	독서	3	80%	②	20%	20%	28%	14%	18%
2위	34	문학	3	67%	②	11%	33%	8%	14%	33%
3위	6	독서	2	64%	④	15%	10%	15%	36%	24%
4위	16	독서	2	61%	④	16%	15%	12%	39%	19%
5위	15	독서	2	58%	②	18%	42%	11%	15%	14%
6위	8	독서	3	55%	②	3%	46%	27%	16%	9%
7위	12	독서	3	53%	④	9%	31%	8%	47%	4%
8위	14	독서	2	51%	①	50%	9%	15%	20%	6%
9위	13	독서	2	49%	②	30%	52%	2%	5%	11%
10위	2	독서	3	45%	①	56%	2%	7%	16%	18%

(%는 반올림한 값)

- 01 먼저 ‘화법과 작문’ 응시생을 기준으로 통계를 살펴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응시생을 기준으로 별도로 언급해야 할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다.
- 02 오답률 TOP 10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독서 9문항, 문학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 과목 중에서는 딱히 눈에 띄게 어려운 문항이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화법과 작문’에 출제된 문항들을 고려했을 때 나름 함정이라 할 수 있는 대목들도 분명 있었으나, 그 자체가 치명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03 과학 지문에서는 모든 문항[→ 14, 15, 16, 17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선지 선택 비율을 고려했을 때 특정 선지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문이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이 불친절했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선지가 묻고자 하는 바가 직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혼란이 컸을 것이다.

04 인문 지문(주제 통합형)에서 두 문항[→ 6, 8번], 사회 지문에서 두 문항[→ 12, 13번], 독서론 지문에서는 한 문항[→ 2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사회 지문에서 ‘검비하다’와 ‘구비하다’를 당시 수험생들이 구분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면 13번의 오답률은 어느 정도 예상된 지점이기도 하다. 2번의 경우 독서론 지문이 출제될 거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기>의 고어체로 인해 혼동이 가중되어 오답률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감 모의고사에서도 앞으로 이런 유형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훈련을 거쳐 익숙해지기만 하면 오히려 시간 절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05 문학 영역에서는 오답률 TOP 10에 한 문항[→ 34번]이 포함되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극히 낯선 작품임에도 <보기>가 작품 감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점, 그럼에도 각각의 선지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해석이라는 점 때문에 특히 버거웠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항 해설에서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다.

오답률 TOP 10 - 언어와 매체 응시 기준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17	독서	3	74%	②	20%	26%	27%	12%	15%
2위	34	문학	3	63%	②	10%	38%	7%	11%	35%
3위	6	독서	2	62%	④	15%	7%	14%	38%	26%
4위	16	독서	2	56%	④	16%	12%	9%	45%	18%
5위	15	독서	2	51%	②	16%	49%	9%	12%	13%
6위	8	독서	3	49%	②	2%	52%	26%	12%	7%
7위	12	독서	3	46%	④	8%	28%	6%	55%	3%
8위	41	매체	3	45%	④	30%	1%	6%	56%	7%
9위	13	독서	2	40%	②	24%	60%	2%	3%	11%
10위	2	독서	3	39%	①	61%	2%	7%	12%	18%

(%는 반올림한 값)

- 01 오답률 TOP 10이 전체적으로 ‘화법과 작문’ 응시생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편이나, ‘매체’가 한 문항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 02 무엇보다도 ‘언어와 매체’로 인한 시간 관리의 불리함이 없도록 언어 영역에서 난도를 낮췄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작년 수능에서는 오답률 TOP 10에서 ‘언어’ 영역이 1,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 변화이다. 다만 수능에서는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 가령 중세 국어], 이번 시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충분히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 03 전체적으로 ‘언어와 매체’ 응시생들이 더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선택과목을 결정하도록 하자.

II

영역별 특징과 경향

공통과목 : 독서

01. 출제 경향

✍ 총평

- 독서 지문의 수가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 각 지문에 포함된 문항들의 수는 줄어들었다. 특히 주제 통합형 지문에서 <보기> 문항이 하나만 출제되었으며, 사회 지문에서는 아예 <보기>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
- 평가원이 의식적으로 난도를 높이려고 한 지점은 딱히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인문 지문(주제 통합형)은 소재의 측면에서, 그리고 과학 지문은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상당히 까다롭다. 출제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다.

✍ 지문

- 첫 번째로 등장한 독서론 지문은 난도 자체는 쉬운 편이다. 이러한 유형의 지문은 2014학년도 수능 이후로는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등장하였다. 적어도 올해 수능까지는 이러한 유형이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니 인지해 두자.
- 과학 지문을 제외하면 정보량 자체가 많지는 않다. 특히 사회 지문의 경우 독자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느껴진다. ‘베카리아’라는 학자의 단일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의 전개 방식 역시 상당히 친절하다.
- 인문 지문(주제 통합형)은 (가), (나) 사이의 외적 긴밀함은 떨어져 보이지만, 내적 긴밀함이 돋보이는 지문이다. (가)에서는 새면의 과정 이론을 토대로 물리적 상호 작용을 전제로 한 ‘인과’를 설명한다면 (나)에서는 재이론을 토대로 규범과 물리적 현상 사이의 ‘인과’를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나)에서는 ‘인과의 전도’를 짚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앞선 두 내용을 전부 문항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출제자도 (가), (나)를 연결하여 통합적

으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5번 문항의 선지들이 (가), (나)를 두루 걸쳐서 물어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 측면이 돋보인다. 지금까지 평가원은 세부 내용 파악 문항을 항상 (가)에 대해서만, 혹은 (나)에 대해서만 물어봤다.

- 과학 지문의 경우 가장 전통적인 형식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관련 지식이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 읽기 곱끄러운 방식으로 정보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정의되지 않은 불명확한 개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독해자의 부담이 상당한 편이다. 올해 이감 모의고사 시즌4 2차에서 동일한 개념의 원리적 측면을 한 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감 모의고사를 충실히 학습하였다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문항

- 전반적으로 선지 표현의 추상도가 높다. 해당 선지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해 해맨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오히려 상위권~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개별 선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의문이 생겨서 오래 고민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 틀린 선지 하나에 마음 휘둘리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왜 틀렸는지를 충분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당장의 좌절보다는 당장의 복습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법이다. 많이 틀렸다면 그만큼 본인의 약점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어지는 개별 지문에 대한 지문 분석과 문항 해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자.

02. 지문 분석

✓ [1~3] 독서론(단일 지문)

- 올바른 독서법과 관련하여 ‘기록의 중요성’을 주제로 하는 짧은 글이 제시되었다. 낱설다는 점을 제외하면 글 자체에는 오해의 여지가 없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85쪽에서 다루고 있는 ‘이익’이 〈보기〉에 등장하였으나 유의미한 연계 지점이라 볼 수는 없겠다.

✓ [4~9] 인문(주제 통합형 지문) : 인과에 대한 동서양의 견해

- (가)에서는 근대 이후 서양 철학자들이 ‘물리적 상호 작용’의 틀 안에서 이해한 ‘인과’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새먼의 ‘과정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나)에서는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동양의 ‘재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인과에 대한 설명임에도 (가)와 달리 ‘물리적 상호 작용’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독해의 시작점 이겠다. 그래야만 (가)와 (나) 사이의 내적 긴밀함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85쪽의 부수 개념소인 ‘재이론’과 수능특강 227쪽의 핵심 개념소인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이 (나)의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고난도 문항 해설 : 6번 (오답률 64%, 62%)

* [A] 설명

[A]에 들어가기에 앞서 핵심 개념에 대응하는 ‘과정’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새먼이 과정 이론을 통해 논증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1) 새먼의 ‘과정 이론’이 처음으로 제시되는 (가)의 문단2부터 보자.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이는 새먼이 ‘과정 이론’을 통해 논증하고자 하는 바를 결정적으로 내포하는 문장이다. ‘그림자의 움직임’은 ‘그림자 위치의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이다. 즉 ‘그림자 위치의 변화’는 ‘그림자의 움직임’이 아니라 ‘공의 움직임’에 의한 결과가 된다.

[주목] 흔히 인과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A는 B의 원인이다.”를 설명하기

위해 “A가 B의 원인이지, B가 A의 원인인 것은 아니다.”를 논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해당 문장을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공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정도로 오독한 학생들도 많을 것이다. 공부량이 적든 많든, 현장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니 주의하자.

- 2) 새먼이 말하는 과정이란 ‘어떤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결과적으로 과정은 모든 대상에 대해 존재하는 셈이다. 다만 어떤 과정은 인과적 과정이지만, 어떤 과정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오직 도입된 표지[→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가 교차 이후의 모든 지점에 전달될 수 있어야 ‘인과적 과정’이란.
- 3) 이제 [A]로 들어가자. [A]는 어디까지나 2)를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이다. 먼저 과정 1은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때의 이동은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시간적 이동일 수도 있다. 애당초 과정이란 ‘시공간적 궤적’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도 시간적 이동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겠다.
- 4) 이때 교차가 이루어진다. ‘과정 2’는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내는 과정’이다. 그 교차로 인해 ‘표지’가 도입되는데, 이때의 표지는 ‘바나나의 물리적 속성의 변화’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베어 내는 행위로 인해 그만큼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겠다.
- 5) 이러한 표지[→ 베어 내는 행위로 인해 바나나가 줄어들었음]는 교차 이후에도 과정 1에서 계속해서 전달되고, 바나나는 그 상태로 b 지점까지 이동한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교차 이후에도 표지가 모든 지점에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 6) 이를 지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주목] 이때 중요한 건 어떤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홀로 인과적 과정이라는 의미다. 즉 과정 2가 과정 1에 표지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결코 원인이 될 수 없다. 과정 2가 과정 1에 표지를 도입하고, 그 표지가 계속 전달된다는 것은 과정 1이 스스로 인과 관계를 띠고 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과정 2가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 7) 반면 ‘과정 3’은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지금의 이동은 공간적 이동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이때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도 변한다.

- 8) ‘스크린상의 변화’에 해당하는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하게 되면 표지[→ 바나나 그림자의 일그러짐]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스크린의 해당 지점을 지나면 결국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교차 이후 모든 지점에서 표지가 전달되지는 않는다.].
- 9) 따라서 ‘과정 1’[→ 바나나의 움직임]과 달리 ‘과정 3’[→ 바나나 그림자의 움직임]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즉 바나나의 그림자가 이동한 것은 바나나의 그림자가 b’ 지점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이 아니다.
- 10) 그렇다면 그림자는 왜 위치가 변화했을까? 1)을 다시 떠올리자.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해당 물체[→ 공, 바나나]가 움직였기 때문이지, 그림자가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림자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의 위치 변화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림자의 위치 변화는 해당 물체가 이동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A]의 결론이다.

*** 정답 설명 : ④**

- 1)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 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정 1,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가 변한 것에 해당한다.
- 2) 지문에서는 애초에 ‘과정 2, 3의 교차’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다. 혹시 지문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도 스크린상에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이 변화하는 것이 ‘과정 2, 3의 교차’를 함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음과 같이 스스로 생각을 바로잡았어야 한다.
- 3) 만약에 과정 2와 과정 3이 교차하더라도[→ 이걸 어디까지나 이렇게 오해한 학생들을 위한 가정이다.], 그로 인해 과정 3에 도입된 표지[→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이 변화함]는 교차 이후의 모든 지점에 전달될 수 없다.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변화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즉 과정 3에 전달된다. 이러한 표지는 ‘과정 3’과의 교차로 도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과정 2, 3의 교차’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적절하지 않다.
- 5) 마지막으로 [A]의 결론을 다시 짚어 보자. 바로 ‘그림자가 변화한 것’은 그림자가 그렇게 변해서가 아니라[→ 그림자 자체의 과정이 인과 관계를 가져서가 아니라], ‘해당 물체가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점이다.

- 6) 그림자가 이동한 것이 ‘그림자 자체의 이동’이 아니라 ‘해당 물체의 이동’에 의한 결과라면, 마찬가지로 그림자의 모양이 변한 것도 해당 물체에 그러한 표지가 도입된 것[→ 과정 1, 2의 교차]의 결과인 거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 ① : 바나나는 ‘과정 1’로 그 시공간적 궤적이 설명되고 바나나의 그림자는 ‘과정 3’으로 그 시공간적 궤적이 설명된다. 따라서 이 둘은 당연히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 ② : 바나나의 경우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바나나가 베어 낸 만큼 없어짐’이라는 표지가 도입된다. 이는 곧 전후의 물리적 속성이 다르다는 뜻이다.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므로 교차로 인해 도입된 표지가 교차 이후의 모든 지점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 ③ :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A]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보자. 어떻게 보면 (가)의 주제에 가까운 진술이다. 찍더라도 이런 선지를 선택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
- ⑤ :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스크린상의 그림자의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표지는 과정 3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과정 4에 도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그 뒤에서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라고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과정 4에는 어떤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정 3에서도 스크린의 해당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도입된 표지는 과정 3에서 전달될 수가 없다.

[주목] 이때 ‘과정 3으로도 과정 4로도’와 같이 여지를 열어 주는 표현 때문에 둘 중 하나로는 전달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한 학생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함정에 불과하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함정에 빠지면 바보라는 얘기가 아니다. 평가원도 이런 함정을 자주 판다는 얘기다.

✔ [10~13] 사회(단일 지문) :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 ‘베카리아’의 단일 관점이 제시된 매우 짧은 글이다. <보기> 문항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12번 문항이 있기는 하나, <보기>가 없기 때문에 부담도 덜한 편이다.
- 연계 양상 : 지문에 소개된 ‘베카리아’의 관점은 수능특강 239쪽 지문의 주제인 ‘형벌은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에 가깝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차라리 특정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유리했을 것 같다.

✔ [14~17] 과학(단일 지문) : PCR 기법의 원리와 유형

- ‘전통적인 PCR’과 ‘실시간 PCR’이라는 두 개념을 비교하면서 ‘실시간 PCR’에 활용되는 두 가지 발색 물질을 비교하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지문이다. 잘 읽히지 않았다면 내용이 그 만큼 낯설었기 때문일 것이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174쪽의 핵심 개념소인 ‘PCR’이 그대로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굉장히 노골적인 연계였던 만큼 이감 모의고사를 충분히 활용한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 17번 (오답률 80%, 74%)

*** [A]와 <보기> 설명**

문제는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을 진행한 것이므로 먼저 [A]를 정확히 해석해야겠다.

- 1) [A]와 <보기 1>은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를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즉 ‘특정 발색도’에 도달함으로써 표적 DNA의 초기 농도를 알 수 있는 셈이다.
- 2) 실시간 PCR은 ‘표적 DNA’를 검출하기 위해 DNA 복제를 반복하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증폭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즉 실시간 PCR은 ‘표적 DNA가 검출되었다고 판단되는 발색도’에 도달하면 종료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이클 횟수를 Ct라 한다.
- 3) ㉔와 ㉒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양의 시료로 실험을 진행하였

으니 각각 몇 차례의 사이클을 반복하는지는 관계없이 ‘도달하고자 하는 발색도’는 결국 같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자면, 두 선수가 달리는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초기 농도가 다르다고 해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 지점이 달라지는 않는 것과 같다[→ 표적 DNA가 검출되었다고 판단되는 발색도는 같다.].

- 4) ㉔와 ㉕의 시료 양은 동일하다. 이를 통해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 ㉔가 ㉕보다 초기 농도가 높은 것은 ㉔가 ㉕보다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이 많다는 것과 같은 뜻을 알 수 있다. 문단2에 따르면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따라서 표적 DNA의 증가량은 ㉔가 ㉕보다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미 정답은 ①, ②번 선지 중 하나겠다.

[주목] 사이클마다 증가하는 표적 DNA의 양이 2배씩 증가한다는 표현 때문에 ㉔,

㉕ 모두 증가량이 동일할 거라 생각했다면 곤란하다. 가령 상황을 단순화하여

㉔에 포함된 표적 DNA가 100개이고 ㉕에 포함된 표적 DNA가 10개라면,

㉔는 100, 200, 400, 800개씩 증가하지만 ㉕는 10, 20, 40, 80개씩 증가한다.

- 5) Ct값은 ‘표적 DNA가 검출되었다고 판단되는 발색도’에 도달할 때까지 몇 번의 사이클을 반복했는지를, 즉 실시간 PCR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사이클의 [최소] 횟수를 뜻한다.

- 6)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목표 지점은 ㉔든 ㉕든 다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둘이 같다. [A]에서도 말했지만, Ct값에서의 발색도는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되는 발색도’를 말한다. 동일한 표적 DNA를 대상으로 하는 ㉔와 ㉕에서 Ct값에서의 발색도가 다를 이유는 없다.

- 7) 그렇다면 Ct값 자체는 어떨까? 이건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질 거다. 표적 DNA의 초기 양이 많을수록, 표적 DNA가 증가하는 속도도 더 빠를 테고, 그럴수록 더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할 테니 말이다. 다시 비유하자면 빠르게 달리는 선수일수록 목표 지점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겠는가?

- 8) 따라서 미지 시료의 Ct값이 표준 시료의 Ct값보다 작을 것이다.

* 정오답 설명 : ②

- 1) ㉔[→ 미지 시료]가 ㉕[→ 표준 시료]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는 것은 ㉔가 ㉕보다 표적 DNA의 초기 양이 많다는 뜻이다. <보기 1>에 따르면 ㉔와 ㉕가 같은 양의 시료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농도가 높다는 것이 양이 많다는 것과

같음을 추론할 수 있다.

- 2) ㉔가 ㉖보다 표적 DNA의 초기 양이 많으므로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이 2배씩 증가하는 PCR의 원리에 따라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 또한 ㉔가 ㉖보다 많을 것이다. 따라서 ㉔는 ㉔가 ‘㉖보다 많겠군’이 적절하다. 모르겠다면 ‘[A]와 <보기> 설명-4)’를 참조하자.
- 3) [A]에서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 즉 Ct값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㉔는 ㉖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으므로 표적 DNA의 초기 양이 많다. ㉔는 ㉖보다 표적 DNA의 양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고, 표적 DNA가 검출되는 발색도에 더 빨리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적은 사이클을 반복하였는지[→ Ct값이 얼마나 작은지]와는 관계없이 ㉔가 Ct값에 도달했을 때의 발색도는 ㉖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㉔는 ㉔가 ‘㉖와 같겠군’이 적절하다. ‘[A]와 <보기> 설명’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 내용이다.
- 4) [A]에 따르면 Ct값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최소] 사이클이다. 그리고 Ct값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표적 DNA의 초기 양이 많으면 Ct값은 작고, 표적 DNA의 초기 양이 적으면 Ct값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이 2배씩 증가하므로 표적 DNA의 초기 양이 많다면 목표로 하는 수준의 발색도에 더 빨리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 5) 따라서 ㉔가 ㉖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으므로 ㉔가 ㉖보다 표적 DNA의 초기 양이 많은 것이고 결국 ㉔가 ㉖보다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까지 도달하는 데에 필요한 사이클은 적을 것이다. 즉 Ct값이 작을 것이다. 따라서 ㉔는 ㉔가 ‘㉖보다 작겠군’이 적절하다. ‘[A]와 <보기> 설명-7), 8)’을 참조하자.

01. 출제 경향

✍ 총평

- 2022학년도 예시문항의 형식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수능 출제 경향을 따랐다. 2문항이 추가되어 17문항이 출제된 것 외에는 문항 유형에 특별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동안의 수능 경향을 반복하였다. 예시문항과 달리 현대시를 4문항이 아닌 3문항으로 출제하면서 고전시가와 수필로 구성된 갈래 복합의 문항 수를 6문항으로 제시해 문항 수 배치에서도 과거 수능 형식을 되풀이했다.
- 난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선지의 길이도 길지 않았고 밀도도 크게 높지 않았다. 어휘의 수준이나 추상도도 무난했다. 작년에 계속 어렵게 출제되었던 고전시가의 경우에도, 무엇보다도 지문을 최대한 현대어로 풀어 주어 쉽게 독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EBS 채감 연계율이 매우 높았다. 연계율 50%라고 고시되었으나, 실제 70%를 넘는 수준이었다. 4개의 지문 모두에 연계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수필이 출제되면서 극 갈래는 제외되었다.

✍ 출제 작품

분야	문항 수	작품	EBS 연계
현대소설	4문항	홍성원, 「무사와 악사」	수능특강 p.181 (수특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 출제)
고전시가 + 수필	6문항	김시습, 「유객」	비연계
		김광옥, 「율리유곡」	수능특강 p.225 (5수 중 2수가 수특과 겹침)
		김용준, 「조어삼매」	비연계
고전소설	4문항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수능특강 p.139 (수특과 일부 겹침)
현대시	3문항	김기림, 「연륜」	비연계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수능특강 p.107

02. 작품별 분석

✓ [18~21] 현대소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서사의 흐름이 뚜렷하기보다는 관념적인 서술이 두드러진 「무사와 악사」가 출제되었다. 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다. [앞부분의 줄거리]에 ‘임 씨’라는 인물이 제시되었지만, 정작 작품 인용부에서는 한 번도 ‘임 씨’라는 진술 없이 ‘저’라는 인물로만 등장하는 가운데 이 ‘저’가 그대로 선지에 활용되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문항 해설 : 20번 (오답률 35%, 25%)

* 정답 설명 : ①

- 1) 지문의 ㉓는 기범이 갖고 있던 남다른 생각으로, ‘나’는 임 씨[-> ‘저’]에게 이를 들려 달라고 한다.
- 2) 그 후 ‘나’는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낀 후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로 생각하게 되고, 끝내 기범의 삶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 3) 따라서 ‘나’가 ㉓를 이해한 것은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

* 많이 고른 오답 설명

- ③ : ‘나’가 ‘생각난다’고 한다는 점에서 ㉓에 대한 회상은 어디까지나 화자의 내면에 서만 전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가 ‘나’의 의문이 ㉓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 ‘저’는 ㉓에 대해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같’다고도 하지만, 오히려 ㉓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 같지만’이라는 말을 통해, ‘저’가 기범의 생각을 깨닫고 나서는 그것이 결코 궤변이 아니라고 생각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저’는 ㉓로 인해 기범을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나’는 과거의 ㉓를 떠올리며 기범을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으로 인식을 전환하는데, 이는 ‘나’가 ㉓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2~27] 고전시가 + 수필 : 김시습, 「유객」 / 김광옥, 「울리유곡」 / 김용준, 「조어삼매」

- 갈래 복합의 경우, 평설 속에 여러 편의 시조가 수록되어 있었던 예시문항과 달리 한시, 고시조, 현대수필을 묶어 예년의 수능과 유사한 구성으로 출제되었다.
- 세 작품 중 고시조인 「울리유곡」이 연계 출제되었는데, 수능특강 수록본보다 훨씬 현대어에 가깝게 풀이되어 있어서 난도는 높지 않았다.
- 수필도 주목할 만한데, 비연계 작품이지만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현대수필 「조어삼매」가 재출제되었으며, 지문의 일부는 겹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예년과 달리 수필 단독 문항이 2개나 제시되었다. 이것은 「조어삼매」라는 작품의 밀도가 높았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항 해설 : 25번 (오답률 44%, 32%)

* 정답 설명 : ①

- 1) (나)의 화자는 <제1곡>의 중장과 종장에서 ‘도연명’이 살았던 마을 이름과 본인이 사는 마을 이름이 같으며, 돌아와 ‘수줄전원’하는 것이 ‘그[→ 도연명]와 내가 다르랴’라며 ‘도연명’을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 2) 또한 <제1곡>의 초장에서 화자는 ‘도연명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난다고 하는데, 이때 ‘또 연명이 난다’는 것은 ‘도연명’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도연명’의 행적을 따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도연명’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한편 (다)의 ‘판교’는 오십이 넘은 이후에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삶을 보냈는데, (다)의 글쓴이 역시 이를 떠올리며 자연에서 낚시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판교’는 은거의 측면에서 글쓴이가 따르고자 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 많이 고른 오답 설명 : ②

- 1) (나)의 <제8곡>에 드러난 ‘삼공’은 속세에서 귀한 가치를 가지지만 자연에 미치지 못하는 직위로, 세속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 2) 그러나 (다)의 ‘성격 파산자’는 ‘거리’에서 ‘공연스레 왔다갔다’하는 인물일 뿐 속세의 지위와는 관계가 없다. 속세의 인물이라고 해서 속세의 어떤 지위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곤란하다.

✔ [28~3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 서사가 쉽게 파악되는 「채봉감별곡」이 출제되어 역시 난도가 낮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특정 문항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겠다.

✔ [32~34] 현대시 : 김기림, 「연륜」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비연계 작품인 김기림의 「연륜」이 짧은 시험 시간 동안에 파악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작품이었을 것이다.
- 〈보기〉에서 작품의 주제 의식과 관련된 정보를 상당 부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비연계 작품인 (가)가 낯설게 느껴져서 시의 의미가 와닿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대시에서는 주로 한 작품은 비연계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 작품에만 매몰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시어나 시구의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만을 구분하고 〈보기〉 맥락에 맞춰서 선지를 판별하려고 했다면 34번 문항의 답이 없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를 읽었다 하더라도 선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면 ⑤번 선지를 정답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험이 끝난 후에 다시 봐도 왜 ②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고난도 문항 해설 : 34번 (오답률 67%, 63%)

*** 〈보기〉 설명**

- 1) 작품의 감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한다는 내용과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내용을 통해서 두 작품 내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2) 각 작품에서 화자가 결핍을 발견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는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나)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다고 〈보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와 작품의 연결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 정답 설명 : ②**

- 1) (가)에서 ‘불꽃’은 결핍에서 벗어나 열렬히 사는 화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2) (가)의 화자는 ‘주름 잡히는 연륜’에서 결핍을 느끼고 새로운 가치를 찾고자 한다. 즉,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이지 끊어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주목] <보기>의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를 ②번 선지의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음’과 동일한 의미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3) 정리하자면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화자의 모습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많이 고른 오답 설명 : ⑤**

- 1) (가)에서 화자는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겠다고 하는데, 이때 ‘초라한 경력’은 화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서른 나문 해’의 세월이요, ‘뜻’ 없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의미한다. 즉,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겠다는 것은 결핍된 채로 살아온 육지에서의 삶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육지’는 화자가 결핍된 인생을 살아온 공간이자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2)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느낄 때]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했다. 따라서 ‘버스’는 화자가 결핍을 느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01. 화법과 작문

✍ 총평

- 올해 6월 모의평가 ‘화법과 작문’은 전반적으로 평이했고, 난도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다. 지문의 주제나 내용 자체가 평이했기 때문에 지문을 독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고난도 문항도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다.
- ‘화법과 작문’이 ‘언어와 매체’와 함께 선택과목으로 바뀐 후 처음으로 치러진 시험이다. 지난해까지 ‘화법과 작문’은 10문항으로 출제되었는데,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한 문항이 늘어 총 11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문항 구성은 기존의 ‘화법’ 3문항, ‘화법-작문 통합’ 4문항, ‘작문’ 3문항이던 것이 ‘화법-작문 통합’에서 한 문항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 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에서는 ‘작문’에서 한 문항을 늘렸던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향후 ‘화법-작문 통합’과 ‘작문’에서 한 문항을 번갈아 가져가며 문항 구성에 변주를 주지 않을까 예상된다.
- 하지만 출제 형식은 기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화법(35~37번)’에서는 ‘강연’이 출제되었는데, 이는 지난 2년 동안 5번이나 출제되었던 ‘발표’에서와 묻는 지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익숙했을 것이다. ‘작문(43~45번)’ 역시 작문 과제나 작문 상황이 주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초고가 작성되는 ‘작문’의 전형적인 출제 형식이어서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익숙했을 것이다.
- 다만, ‘화법-작문 통합(38~42번)’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5문항으로 출제되면서 작문 지문이 두 개가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가)에서 학생들 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두 명의 학생이 각각의 글 (나)와 (다)를 작성하는 형식이다. 큰 틀에서는 담화 이후 글 작성이라는 ‘화법-작문 통합’의 전형을 보이고 있지만, 각기 다른 두 편의 글이 나온다는 게 기존과의 차이점이다. 이 때문에 ‘화법-작문 통합’에서는 두 작문 지문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시문항 ‘작문’에 출제되었던 형식이라 예시문항을 학습했던 학생들이라면 매우 익숙하게 풀었을 것이다.
- 수능특강 연계율은 30%에 그치며, 그마저도 매우 느슨한 수준의 연계여서 ‘화법과 작문’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 [35~37] 화법(강연) : 여름철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대책

- ‘발표’와 더불어 ‘화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정보 전달의 말하기인 ‘강연’이 출제되었다.
- 문항 구성은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35번), 강연 계획(36번), 청중의 듣기 활동(37번)으로 자료 활용에 대해 주로 묻던 문항이 강연 계획으로 변주되었다. (문항의 일부 선지가 자료 활용 계획에 대해 묻고 있다.) 또한 이 문항은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화법-작문 통합’의 5번 문항과 유사하게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세운 강연 계획에 대해 묻고 있다.

✓ [38~42] 화법-작문 통합(대화&건의문, 설득하는 글) : 의류 수거함 문제

- 학생들의 대화 (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건의문 (나)와 설득하는 글 (다)로 구성된 ‘화법-작문 통합’ 문제이다. (가)에서 두 학생의 대화를 통해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한 서로의 해결 방안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 적합한 예상 독자와 매체를 달리 설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글쓰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었으며, 문항에서도 이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 문항 구성은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38번), 대화 내용의 반영(40번), 고쳐 쓰기(42번)가 기존과 유사하게 출제되었다. 변화된 지점이라면 대화의 특정 부분의 발화에 대한 파악(39번)과 작문 맥락을 고려한 비교(41번) 문항이다.

✓ [43~45] 작문(정보 전달 글) : 손 글씨 쓰기의 효과

- 작문 상황에 따른 학생의 초고라는 전형적인 ‘작문’ 문제이고, 정보 전달의 글쓰기이다.
- 문항의 구성 역시 글쓰기 계획(43번), 마지막 문단 완성(44번), 초고 보완을 위한 자료 활용 방안(45번)으로 이루어져 있는 익숙한 형식이다.

02. 언어와 매체 : 언어

✍ 총평

- ‘언어’는 형태론, 음운론, 통사론, 화용론, 의미론에서 출제되었다.
- 지난해 수능에 비해 ‘언어’의 난도는 다소 쉬운 편이었다. 지난해 수능과 달리 중세 국어가 출제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언어’는 기존의 출제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필수적인 문법 개념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 개념 자체는 평이했지만 35번과 36번의 경우,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항 번호	분야	제재
[35~36]	형태론 / 음운론	용언의 활용 / 음운 변동과 표기
[37]	통사론	안긴문장의 쓰임
[38]	화용론	담화 표현
[39]	의미론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03. 언어와 매체 : 매체

✍ 총평

- ‘매체’는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어서 학생들에게 다소 낯설었겠지만, 난도는 평이한 수준이어서 푸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 ‘매체’는 이전에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이 지난해 선보인 2022학년도 예시문항뿐이다. 예시문항의 경우 3문항씩 2세트로 출제되었는데, 이는 6월 모의평가 ‘매체’도 동일하다. 다만, 예시문항에서 출제된 매체 세트는 첫 번째 세트(40~42번)가 매체 자료의 수용에, 두 번째 세트(43~45번)가 매체 자료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렇게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두 세트가 혼재되어 있어 세트 간 경계가 모호하다. 또 다른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이 ‘화법’, ‘화법-작문 통합’, ‘작문’으로 나뉘어 전형성을 띠며 출제되고 있는 점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수능특강의 연계율은 50% 정도였다.
- ‘매체’의 경우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되고 있으나 문항 내에서 교과서의 여러 영역이 혼합되어 출제되고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학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0~42] 매체 1(인터넷 신문) : 지역 관광

- 매체의 특성(40번), 매체 자료의 수용(41번), 매체 자료의 생산(42번)으로 이루어진 세트이다. 2022학년도 예시문항과 다르게 매체 자료의 생산이 독립된 세트가 아닌 개별 문항 하나(42번)로 삽입된 것이 특징이다.
- 매체의 특성(40번)에 관해서는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는 기능, 수용자들이 ‘좋아요’ 등의 선호를 표현하는 기능, 관련 기사 제공 기능, 복합 양식성, 최초 입력과 수정 시간 등 내용보다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것을 묻고 있다.
- 매체 자료의 수용(41번)에서는 기자가 기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보기>로 제시되었다. 수용자가 이러한 방식을 파악하여 기사를 읽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로서는 예시문항의 41번과 비슷하다.

✍ [43~45] 매체 2(텔레비전 방송 뉴스, 인쇄 광고) : 휴대용 선풍기

- 예시문항에서는 매체 자료의 생산을 위한 휴대 전화 메신저상의 대화와 그렇게 해서 생산된 슬라이드가 제시되었다. 이에 반해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동일한 제품에 대한 방송 뉴스와 인쇄 광고가 제시되면서 오히려 예시문항의 40~42번 세트와 비슷한 구성이 되었다.
- 매체 자료 간 비교(43번), 매체 자료에 사용된 언어적 특성(44번), 매체 자료의 틀은 같지만 담긴 내용이 다른 두 자료 간 비교(45번)로 구성되었다. 매체 자료에서 사용된 언어적 특성을 묻는 문항(44번)이 예시문항에 이어 또다시 출제된 것으로 보아, ‘매체’에서 ‘매체’적 성격과 ‘언어’적 성격을 지닌 복합 문제로 계속해서 해당 문항이 출제될 것이라 예상된다.

III

이감 연계 양상

공통과목 : 독서

분야	주제	EBS 연계	이감 연계
인문 통합 [4~9]	인과에 대한 동서양의 견해	수능특강 p.85 수능특강 p.227	2021 시즌3 간쓸개 04
사회 [10~13]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수능특강 p.239	2021 시즌1 간쓸개 05 2021 간쓸개 에센셜 02
과학 [14~17]	PCR 기법의 원리와 유형	수능특강 p.174	2021 이감 시즌4 2차 2021 시즌4 간쓸개 02 2021 간쓸개 에센셜 04

공통과목 : 문학

분야	작품	EBS 연계	이감 연계
현대소설 [18~21]	홍성원, 「무사와 악사」	수능특강 p.181	2021 이감 시즌4 2차
고전시가 + 수필 [22~27]	(나) 김광옥, 「율리유곡」	수능특강 p.225	2021 이감 시즌4 1차
고전소설 [28~31]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수능특강 p.139	2021 시즌1 간쓸개 01 2021 간쓸개 에센셜 01
현대시 [32~34]	(나)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수능특강 p.107	2021 이감 시즌2 1차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분야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화법 [35~37]	(강연) 여름철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대책	-	2021 이감 시즌4 2차
화법-작문 통합 [38~42]	(대화&건의문, 설득하는 글) 의류 수거함 문제	수능특강 p.144	2021 이감 시즌4 1차
작문 [43~45]	(정보 전달 글) 손 글씨 쓰기의 효과	-	2021 이감 시즌1 1차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분야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형태론/ 음운론 [35~36]	용언의 활용/ 음운 변동과 표기	수능특강 p.52 수능특강 p.61 수능특강 p.240	2021 이감 시즌2 2차 2021 이감 시즌4 3차
통사론 [37]	안건문장의 쓰임	수능특강 p.65 수능특강 p.86	2021 이감 시즌4 4차 2021 이감 ON 2차
화용론 [38]	담화 표현	수능특강 p.74 수능특강 p.79 수능특강 p.108	2021 이감 시즌1 2차 2021 이감 ON 2차
의미론 [39]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수능특강 p.85	2021 이감 시즌2 1차 2021 이감 ON 3차
매체 1 [40~42]	(인터넷 신문) 지역 관광	수능특강 p.139	2021 이감 시즌4 5차
매체 2 [43~45]	(텔레비전 방송 뉴스, 인쇄 광고) 휴대용 선풍기	-	2021 이감 시즌2 2차

독서: 인문(주제 통합형) — 중심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이 동증서의 '재이론'을 핵심 개념으로 삼아 인과를 설명하였다면 이감은 동증서의 해당 이론을 핵심 개념으로 삼아 해당 이론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나)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재이론(災異論)이다. 한대(漢代)의 **동증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재이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氣)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재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失政)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이때 재이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동증서 이후 원인으로서는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역지가 심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 방식은 오히려 ㉠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재이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감응론 또한 부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이론은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재이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재이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 **찾고자** 재이론을 고수하였다. 그는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키며 재이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하였다.

2021 시준3 간쓸개 04

(가) '도(道)'는 본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뜻하였는데, 춘추 시대에 이르러 하늘의 이치[天道]나 사람의 도리[人道]를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도'는 통념과 달리 노자로 대표되는 도가만의 고유 개념이 아니며 유가를 비롯한 다른 학파들도 규범이나 생활 방식을 논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개념이었다. 다만 천도와 인도에 대한 각 학파의 인식은 상이했다.

(나)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유가는 인간에 의해 실천되는 인도와 이를 찾으려는 인간의 능동적인 태도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그렇다고 유가가 하늘의 섭리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다. 천도는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자 인도를 실현하는 조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나라 때의 유학자 **동증서**는 **천인감응**(天人感應) 사상을 제시하면서 자연과 인간은 동일한 구조를 띠며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인도를 행할 때에는 자연 또한 순조롭게 운행하지만 **군주가 부덕하면 가뭄이나, 지진 등의 재앙이 발생한다**.

(다) 동증서가 하늘의 경고를 통해 군주의 도덕 실천을 촉구했다면 송대의 유학자 주희는 모든 사람들이 신분이나 직분에 맞게 인의예지에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희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세상을 주재하는 최고의 원리인 '이(理)'를 담고 있다. '이'는 천도로 인의에 지라고도 하며 이는 곧 인도와도 닮아 있다. 인간은 마땅히 수양을 통해 본성을 깨우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희의 주장이었다. 즉 인도를 실천하면 천도와 통할 수 있다.

(라) 유가에서는 하늘의 도, 인간의 도, 신하의 도 등 '도'를 구분하여 표현하지만, 도가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본다. 도가에 있어 천도란 인간의 의지나 바람이 반영된 그 어떤 규범을 넘어서는 **자연의 이치**로,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천지도, 만물이 공경하는 원리이자 이들이 자연적으로 따르는 운행 원리이다. 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의 대상물과 다르게 대우해야 할 까닭이 없다. 자연의 대상물과 인간은 물론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평등하다. 그래서 도가는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수용하는 것은 천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

(마) 주희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자연관을 중시하는 무위를 강조하였다. 이는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든 모든 산물, 즉 예법, 의도, 문물 등 인위의 산물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말한다. 노자에 따르면 천도가 제대로 뿌리내린 사회에서는 인의나 효자, 충신은 의미가 없다. 이는 마치 태양이 떠 있을 때 햇빛이 의미 없는 것과 같다. 노자는 자연에 따라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시하였는데, 이에 이르기 위한 태도인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본성이란 도리나 이치가 아니라 사물이 나 사람의 타고난 성질이나 성향을 뜻한다. 나아가 노자는 인위에 집착하는 태도를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래서 '국가도 작고 백성도 적은' 소국과민(小國寡民)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현실에 ㉠ **맞지** 않는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를 줄여서 백성으로 하여금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문 적중

독서:사회 — 유사한 소재를 활용

- 평가원 지문이 형벌에 대하여 ‘베카리아’라는 단일 학자의 관점을 다루었다면 이감은 형벌론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중심 소재를 달리하여 설명. ‘예방주의’라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 다룸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㉞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㉞올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장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㉞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㉞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㉞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 시준1 간쓸개 05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또는 범죄에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죄형 법정주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법언에 근거한 이 원리는 모든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와 형량의 판단에 위정자의 자의(恣意)를 허용하는 죄형 전단주의와 대비된다. 또한 이는 형벌의 목적은 잠재적 범죄인에게 경고를 주어 범죄를 ㉞예방하는 데 있다고 보는 관점인 일반 예방의 근거이기도 하다.

죄형 법정주의는 ㉞내 가지 원칙으로 구체화된다.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㉞범죄의 성립이나 형량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한 ㉞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는 피고인에게 관습법을 고려하여 법률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한편 법률로써 모든 사회 병리 현상을 다스리기는 힘들다. 그래서 법률에 범죄 구성 요건 중 처벌 대상과 형벌을 규정하고 행정 기관이 제정하는 명령에 범죄의 일부 구성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형벌의 상한과 하한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설사 그와 관련된 신법이 제정되어도 소급하여 처벌하거나 형을 더 무겁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㉞도모하는 데 목적이 둔다. 그러나 여기서도 신법의 ㉞처벌 수위가 구법보다 낮을 때에는 신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여 형을 경감하는 것을 허용한다.

나머지 두 원칙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 시 범죄와 형벌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의 모든 구성 요건을 법률에 일일이 규정할 필요는 없어 상충적인 법률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예외적인 표현을 최대한 피하여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벌의 폭도 범죄와 규정해야 한다. 종신형이 아닌, 기한이 있는 자유형을 법률에 ㉞정하거나 하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 원칙에 ㉞위배된다. 한편 형량을 선고할 때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형벌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상한과 하한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는 기간이 수형자의 복역 태도를 평가하여 ㉞석방 시기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내용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타인의 전기를 훔쳐 쓴 사람에게 법관이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기와 같은 동력도 재산으로 간주하는 입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흡결이라 하는데 민법의 흡결은 유추에 의해 ㉞보충되어야 하지만 형법의 흡결은 유추에 의해 보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의 요청이다. 법관의 유추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이는 국회에 의한 입법이 아니라 법관에 의한 입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피고인의 형벌을 ㉞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사유를 넓게 인정하기 위한 확대 해석은 허용한다.

현대의 죄형 법정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한다. 형식성만 강조할 경우 입법자가 악법을 남발하는 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적 죄형 법정주의는 정의에 반하는 법률의 제정을 금지하는 원칙을 ㉞추가하여 ‘적절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법언을 따른다.

소재 적중

독서:과학 — 동일한 개념과 원리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이 다른 PCR이라는 핵심 개념에 대하여 이같은 해당 개념의 원리와 과정에 대하여 훨씬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심도 있게 설명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인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이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지문 적중

2021 이감 시즌4 2차

DNA 바코드 기술은 표본을 ⑤ 이루는 세포에서 DNA를 추출하여 특정 부위의 염기 서열을 확인한 후, 바코드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둔 대표 표본의 염기 서열 정보들과 비교하여 일치도가 높은 계통을 찾아 해당 계통에 속함을 보이는 과정을 따른다. 동물계의 동정에는 보통 세포핵의 DNA가 아니라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의 COI 유전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유전자는 중간 변이도가 크고, 세대를 거듭해도 종 내 변이도가 작아서 DNA 바코드에 적합하다.

동물계의 한 표본이 나비목 X과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DNA를 추출한 뒤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통해 DNA의 양을 늘려야 한다. PCR 기기에 DNA를 ㉠ 넣고 온도를 높이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DNA를 이루던 두 염기 가닥이 분리된다. 상보적으로 결합된다는 것은 A와 T 간에, 그리고 G와 C 간에만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한쪽 가닥에 염기 A가 있으면 다른 가닥에 T가 있어서 서로 결합된다는 것이다. 나비목 X과의 COI 유전자 부위가 'TCGGTACTAG...'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자. 표본에서 이 부위가 포함된 가닥을 주형으로 삼아 새로운 가닥을 만들기 위해, PCR 기기에 이 부위의 앞부분에 상보적으로 결합되는 작은 조각인 프라이머, 즉 'AGCCA'들을 다량 넣어 준다. 그리고 A, T, G, C 중 하나씩을 품고 있는 네 종류의 디옥시뉴클레오사이드 삼인산(dNTP)들도 다량 투입한다. 프라이머는 주형 가닥에 상보적으로 결합되며 DNA 중합 효소가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효소는 dNTP들을 재료로 삼아 주형 가닥에 대한 상보적 규칙에 따라 프라이머에 뒤이어 dNTP들을 하나씩 연결시키며 새로운 가닥인 사본을 만들고, 사본 생성이 완료되면 사본이 주형 가닥에서 분리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많은 사본을 얻을 수 있다.

독서:과학 — 동일한 개념과 원리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이 다른 PCR이라는 핵심 개념에 대하여 이같은 해당 개념의 원리와 과정에 대하여 훨씬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심도 있게 설명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와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지문 적중

2021 시즌4 간쓸개 02

른 다형성(多形性)을 지니고 있어 'DNA 지문'이라 불리는 개인 식별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DNA 지문 분석법은 다양하지만 비교적 적은 시료만으로도 분석이 가능한 STR 분석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STR이란 정크 DNA 중에서 2~5개의 염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부분들을 말한다. 그런데 DNA 염기 서열 중 동일 부분에서 발견되는 STR은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다. 예를 들어 'ACCACCACC...'와 같이 A, C, C의 3개의 염기가 연결된 짧은 서열이 사람에 따라 10번 반복되기도 하고 50번 반복되기도 한다. 이때 10번 반복된 경우의 길이는 30bp*이며, 50번 반복된 경우의 길이는 150bp이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특정 부위의 STR 길이가 다르다는 점을 개인 식별에 활용하는 것이 STR 분석법이다.

STR 분석을 위해 보통 DNA 염기 서열에서 STR이 나타나는 부위를 선정하고, 그 길이를 측정하여 개인 식별의 준거로 삼는다. DNA 염기 서열의 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역할을 하는 제한 효소를 투입하여 해당 STR 조각들을 분리해 내면 시료가 완성된다. 그런데 시료만으로 STR 조각들의 길이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중합 효소 연쇄 반응법(PCR)을 사용하여 STR 조각들의 개수를 늘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가 복제되는 원리와 유사하다. 시료에 DNA 복제 작업을 하는 중합 효소를 넣은 후 온도를 90℃까지 높이면 복제가 시작된다. 중합 효소는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중합 효소들이 복제하는 횟수를 n이라 할 때 STR 조각들은 2ⁿ개만큼 늘어나므로, 짧은 시간 안에 STR 조각들의 개수가 수백만 개로 늘어날 수 있다.

문학: 현대소설 — 작품 적중

- 「무사와 악사」를 공통으로 다루었으며, 수록된 지문이 상당 부분 일치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구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두 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구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2021 이감 시즌4 2차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구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두 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구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작품 적중

문학: 현대소설 — 문항 유사

－ 「무사와 악사」 작품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 묻는 문항의 내용이 유사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나는 다시 기쁨이 지졌었던 과거의 ㉠ 요설들이 생각한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A]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와 오일규가 맞부딪혔을 때 오일규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연속적이거나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문항 유사

18.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2021 이감 시즌4 2차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나는 다시 기쁨이 지졌었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한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27.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의 행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독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추측의 진술을 통해 특정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문학: 고전시가 — 작품 적중 및 문항 유사

- 「율리유곡」의 제시문이 상당 부분 일치하며, 문항에서 다루는 내용이 정오 판정의 대상으로 삼은 지점에 대해 이감 모의고사에서 올바른 해석을 제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나)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다니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졸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제1곡>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 훌턴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제8곡>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랴 <제10곡>

세버들 가지 꺾어 남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남은 다리 건너가니
은 굴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최 행수 쑥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담점 계점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2021 이감 시즌4 1차

(가)

① 도연명(陶淵明)* 주근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단 말가
밤막을 넷 일흔이 마초와 갯틀시고*
도라와 수졸 전원(守拙田園)*이야 괴오 내오 다르랴 <제1곡>

공명(功名)도 이것노라 부귀(富貴)도 이것노라
세상 번우(煩憂)*흔 일 다 주어 이것노라
내 몸을 내마져 이즈니 남이 아니 이즈랴 <제2곡>

강산 한아(閑雅)*흔 풍경 다 주어 맛타 이서
내 혼자 임자이니 뒤라서 다들쏘니
남이야 심술궂다 녀긴들 나눠 볼 줄 이시랴 <제4곡>

헛글고 싯근* 문서(文書) 다 주어 후리치고
필마(匹馬) 추풍(秋風)* 채를 쳐 도라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이다 이대도록 시원하랴 <제10곡>

세버들 가지 꺾기 남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단교(斷橋)*로 건너가니
그 굴에 행화(杏花) 날리니 아무덴 줄 몰라랴 <제15곡>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1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 종장의 '다르랴'라는 설의적 표현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강조한다.
- ② <제2곡> 초장과 중장에서 반복된 '이것노라'는 화자가 더 이상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 ③ <제2곡> 중장의 수식어 '다'는 화자의 흥가분한 마음을, <제4곡> 초장의 수식어 '다'는 화자의 만족스러운 마음을 강조한다.
- ④ <제4곡> 중장의 '내 혼자'와 중장의 '남이야'가 이루는 대구는 화자가 가까운 이들에게서 느낀 거리감을 강조한다.
- ⑤ <제10곡> 중장에서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새'의 상황과 비교한 것은 화자의 후련한 심정을 강조한다.

작품 적중

[A]

문학: 고전시가 — 문항 유사

－ 「율리유곡」 3점 문항의 <보기>가 공간의 표상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2021 이감 시즌4 1차

1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도연명'과 같이 빼어난 인물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② ㉡은 '반계 노인'이 추구했던 목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 ③ ㉠은 '도연명'에 빗대어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은 '반계 노인'의 뜻이 실현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도연명'이 후세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반감을, ㉡은 '반계 노인'이 바란 대로 백성의 삶이 나아지기 바라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은 '도연명'과 같은 과거의 인물에 대해 느끼는 단절감을, ㉡은 '반계 노인'과 같은 인물이 없는 자기 시대에 대해 느끼는 좌절감을 함축하고 있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문항 유사

<보 기>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 ② (나)의 '낮은 다리'는 '주가'와 '온 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다.
-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다.

<보 기>

군주제를 시행한 조선 시대에 서울은 선망의 대상이기도, 환멸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는 군왕의 대궐이 있는 서울이 당대의 정치·사회 질서를 표상하는 공간이라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가)는 서울에서의 관직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화자의 심경을, (나)는 정치·사회 제도의 개혁을 꿈꾸었던 인물의 삶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다)는 서울에서 차별과 가난에 시달리다 산골로 떠나는 벼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심정을 담고 있다.

- ① (가): '공명'과 '부귀'라는 말에서 서울이 당대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유를, '세상 번우흔 일'이라는 말에서 서울이 화자에게 환멸의 대상이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다.
- ② (가): 관직을 떠난 일을 '헛글고 싯근 문서'를 내던지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에서,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환멸감을 엿볼 수 있겠다.

18. [A]와 [B]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⑤ [A]에는 정경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B]에는 저서에 담긴 내용의 정교함에 대한 감탄이 대포되어 있다.

문학: 고전소설 — 작품 적중

－ 「채봉감별곡」을 간쓸개에서 다루었으며, 지문이 상당 부분 일치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앞부분의 줄거리〕 김 진사의 딸 채봉은 선비 필성과 정혼하나,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 관아에서 살게 한다.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넌방에 가 홀로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에 기생을 면함은 다행하나,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 봄을 한하고 이 감사가 보는 데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니, 혼자 있을 때에는 주야 탄식으로 지내더라.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하나,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엄금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수심으로 지내더니, 한 계책을 생각하되,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하고 여러 가지로 주선하더니, ㉠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필성이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현신하니 감사가 일견 대희하여 칭찬하여 왈,

“가위 여옥기인(如玉其人)이로다. 필성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승상접하(承上接下)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봉공(一心奉公)하여 민원(民怨)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

필성이 국궁수명(鞠躬受命)*하고 차후로 공사 문첩(文牒)*을 가지고 매일 드나들며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 리라 어찌 알리오.

차지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 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하더니, ㉡ 하루는 ㉢ 공사 문첩 한 장을 본즉, 필성의 글씨가 완전한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이상하다. 필법이 장 서방님 필적 같으니, 혹 공청예를 드나드나.’

하고 감사더러 묻는다.

“㉣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오니 이방이 갈리었습니까?”

“응, 전 이방은 같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 네 보아라, 글씨를 잘 쓰지 않느냐.”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이 기꺼하며,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 볼까, 그렇지 못하면 편지 왕복이라도 할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알면 무슨 죄벌이 내려올지 몰라 못 하고 무슨 기회를 기다리나 때를 타지 못하여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내기를 ㉤ 이미 반년이라. 자연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더라.

2021 시즌1 간쓸개 01

송이는 수건으로 눈물을 씻고,

[A] “군자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 더욱 불안하외다. 첩이 전일에는 규중처녀라 정실(正室)로 인정하셨거니와, 오늘은 기생의 몸이 되었사오니 어찌 정실로 알아주리까. 이 몸은 비록 빙옥(氷玉)같이 가졌지만, 정결이라 하는 것은 여자의 목숨이라 첩인들 모르리까마는, 몸이 죽을 지경에 들어 죽지 아니함은 죽어도 잊지 못하는 남을 위함이고, 또 첩은 비록 부모로 인하여 기생으로 팔렸사 오나 몸이 일만 번 죽어 수화(水火)에 들지라도 수절(守節) 두 자를 지킬 터이니 버리지 마시길 바라나이다.”

[B] “그는 염려하지 말게. 자네 마음이 이러할진대 나도 정남(貞男)* 두 자를 가져 서로 저버리지 아니 할 것이요, 비록 자네의 몸이 일시의 액운으로 이와 같이 되었으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줄을 아는 바이니 나는 정실로 맞을 터이라. 그러나 걱정은 내 집안 형세가 빈한한즉 자네 몸을 빼내어 올 도리가 없네그려.”

“그것은 염려하지 마시오. 첩이 형편을 보아 차차 주선하오리이다.”

처음에는 서로 서먹하여 자세한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이와 같이 정답을 나누매, 일야기간(一夜之間)에 몇 십 년 살던 부부같이 정밀(情密)하였더라. 필성이 또 묻는다.

“무슨 일로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나는 처음에 서울로 이사했던 말을 듣고 속으로 세상인심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탄탄하였네그려.”

〔중략부분 줄거리〕 평안 감사가 송이의 글재주를 높이 평가하여 몸값을 대신 내고 비서로 삼는다.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하나,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 별당은 외인을 일절 엄금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수심으로 지내더니, 한 계책을 생각하되,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하고 여러 가지로 주선하더니, ㉠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吏房)을 구하는지라. 필성이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현신(顯身)하니 감사가 일견 크게 기뻐하여 칭찬하되,

“가위 여옥기인(如玉其人)이로다. 필성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봉공(一心奉公)하여 민원(民怨)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

필성이 몸을 굽여 명령을 받들고, 차후로 공사(公事) 문서를 가지고 매일 드나들며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리라 어찌 알리오.

이때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 감사가 들어와 공사에 쓸 것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하더니, 하루는 공사 문서 한 장을 본즉, 필성의 글씨가 완전한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이상하다. 필법이 장 서방님 필적 같으니, 혹 ㉢ 공청(公廳)에 드나드나?’

하고 감사더러 묻는다.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의 글씨와 다르오니 이방이 갈렸습니까?”

“응, 전 이방은 같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네. 보아라, 글씨를 잘 썼지?”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히 기꺼하여,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 볼까? 그렇지 못하면 서신 왕복이라도 할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알면 무슨 죄를 내릴지 몰라 하지 못하고, 무슨 기회를 기다리나?’

이렇듯이 때를 타지 못하여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내기를 이미 반년이라. 자연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더라.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 일편병심 : 한 조각의 얼음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
- 정남 : 동정(童貞)을 지키고 있는 남자.

작품 적중

문학: 고전소설 — 선지 적중

－ 「채봉감별곡」 선지의 표현과 발상에 상당 정도 유사성이 있음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송이는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 감사의 걱정을 산다.
- ② 송이는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된다.
- ③ 감사는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건다.
- ④ 송이는 필성과 꿈속에서나마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룬다.
- ⑤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

2021 시즌1 간쓸개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필성은 송이가 기생이 된 것을 가엾게 생각하였다.
- ② 필성은 일행들 앞에서 송이에게 기생이 된 사연을 물었다.
- ③ 송이는 감사를 보필하게 되면서 채봉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 ④ 송이는 자신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필성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
- ⑤ 감사는 필성의 사람됨을 높이 평가하며 송이와 인연을 맺어 주려 하였다.

선지 적중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해 대화하며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챈 감사는, ㉡를 읽으며 그 대상이 필성임을 알게 된다.
- ② ㉠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송이는, ㉡를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린다.
- ③ ㉠을 본 송이는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에 필성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낸다.
- ④ ㉠을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필성은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를 쓰면서 송이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낸다.
- ⑤ ㉠을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 송이는, ㉡를 쓰면서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공간을 파악하는 방법을 익힌다.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필성의 달라진 신분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 ② ㉠과 ㉡은 필성에 대한 송이의 달라진 태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③ ㉡은 송이와 필성의 갈등이 고조되는 공간이고, ㉡은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④ ㉡은 송이에 대한 필성의 오해가 해소되는 공간이고, ㉡은 송이에 대한 필성의 의심이 재발하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인물들이 문서를 보며 상대를 향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공간이다.

문학: 현대시 — 작품 적중

- 「대장간의 유혹」을 공통으로 출제하였으며, 문항의 발상 및 판정 근거가 매우 유사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낮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작품 적중

2021 이감 시즌2 1차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낮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문학: 현대시 — 문항 유사

－ 「대장간의 유혹」을 공통으로 출제하였으며, 문항의 발상 및 판정 근거가 매우 유사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3.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일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꿰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머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머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2021 이감 시즌2 1차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빠가 서지 못해서'는 자기 존재를 유지하는 힘의 부족을 표현한 것으로, 실의에 빠진 화자의 무력감을 나타낸다.
- ② ㉡의 '무너지는 독'은 발 딛고 선 공간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삶의 기반이 파괴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 ③ ㉢의 '뛰어내리고 싶다'는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려는 충동을 표현한 것으로, 목표를 상실한 삶의 위험성을 나타낸다.
- ④ ㉣의 '나를 달구고'는 열정을 고양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갈망을 나타낸다.
- ⑤ ㉣의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고 싶다는 기대를 표현한 것으로,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삶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바람을 나타낸다.

4. (나)의 [플라스틱 물건]과 [꼬부랑 호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플라스틱 물건'은 효용성보다 내적 자질이 중요함을, '꼬부랑 호미'는 외양보다 기능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소재이다.
- ② '플라스틱 물건'은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는 데서 오는 안락함을, '꼬부랑 호미'는 힘겨운 노동에 의존해야 하는 삶의 고단함을 내포한다.
- ③ '플라스틱 물건'에서는 주어진 역할을 다한 존재의 달관적인 태도가, '꼬부랑 호미'에서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며 성장하는 존재의 능력이 드러난다.
- ④ '플라스틱 물건'은 절제되지 않은 욕망의 추구가 불러올 미래 사회의 삶을, '꼬부랑 호미'는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함으로써 지속되었던 전통 사회의 삶을 나타낸다.
- ⑤ '플라스틱 물건'은 개인의 삶이 획일적인 질서 속에서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상황을, '꼬부랑 호미'는 치열한 노력으로 이루어 낸 개개인의 삶이 존중되는 상황을 환기한다.

문항 유사

화법과 작문: 화법 — 문항 유사

- 발표 혹은 강연 형식에서 말하기 방식이 반영된 부분을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됨
- 발표 혹은 강연 형식에서 청중이 보인 반응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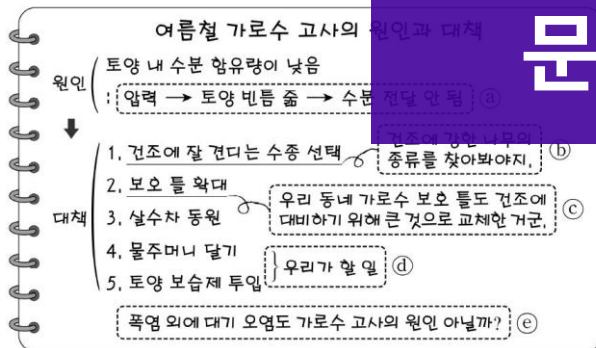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5.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 대상을 다른 소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② 강연 내용과 관련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③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강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과거 사례와 최근의 사례를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다.
- ⑤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

37. 다음은 학생이 강연을 들으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①: 화살표를 사용하여 강연 내용을 메모한 것으로 보아, 세부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들었겠군.
- ② ②: 강연 이후의 조사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에서 더 알고 싶은 점을 떠올리며 들었겠군.
- ③ ③: 동네 가로수의 보호 틀을 교체한 이유를 추측한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을 자기 경험과 관련지으며 들었겠군.
- ④ ④: 자신이 할 일을 따로 묶은 것으로 보아, 특정 기준으로 정보를 구분하며 들었겠군.
- ⑤ ⑤: 강연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의 논리적 모순을 확인하며 들었겠군.

2021 이감 시즌4 2차

35.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 ②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소개하여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이 강연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하고 있다.
- ④ 강연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하고 있다.
- ⑤ 강연 내용을 중간중간에 요약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7. 다음은 강연을 들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듣기 후〉

- 이안류가 발생하기 쉬운 해수욕장들은 어느 곳들일까? ... ①
- 이안류 발생 때 가족들과 해수욕장에 갈 계획인데, 해양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해야겠어. ②
- 불가피하게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의 대처 방안은 알려 주지 않아서 아쉽네. ③

○ 강연을 듣고 정리한 내용

- 이안류: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역행하여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 돌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해서 위험. ④
- 발생 원인: 지형, 바람, 파고 등의 복합적인 원인. ⑤
- 예방 방법: 4단계 이안류 지수 확인, 안전 요원의 지침 준수. ⑥

- ① ①과 ③을 함께 고려할 때, 강연을 듣기 전에 떠올렸던 궁금증에 대한 답을 강연에서 찾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②에서는 강연을 듣고 난 후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떠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③에서는 강연에서 들은 내용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려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④에서는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추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⑤에서는 강연자가 언급한 내용을 발생 원인과 예방 방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법과 작문: 화법-작문 통합 — 문항 유사

- 토의(대화)와 작문이 결합된 형식에서 토의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
- 토의(대화)를 바탕으로 글에 반영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안의 원인을 묻는 상대방에게 신문 기사 내용을 근거로 답하고 있다.
- ② ㉡: 상대가 언급한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③ ㉢: 사안의 원인에 대한 상대의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며 상대와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신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반복하며 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1 이감 시즌4 1차

38.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생 2'가 온라인 댓글 실명제의 도입 논란을 다뤄 주자고 한 것은 모두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제안한 것이군.
- ② '학생 3'이 다른 모둠에서 선정한 제재라고 언급한 것은 다른 모둠과 중복된 제재를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 ③ '학생 1'이 주식 공모도에 대해 다뤄 주자고 한 것은 '학생 3'의 발언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이군.
- ④ '학생 2'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언급한 것은 예상 독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 ⑤ '학생 3'이 '학생 2'의 제안에 동의한 것은 GMO 완전 표시제가 학생들의 관심을 고려한 제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문항 유사

40. (가)의 대화 내용이 (나), (다)에 각각 반영된 양상과 관련지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학생 2가 글감 선정의 이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1문단에 학생 다수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 ② (가)에서 학생 2가 의류 수거함의 상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의 1문단에 문제 제기의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 ③ (가)에서 학생 1이 신문 기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3문단에 건의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 ④ (가)에서 학생 1이 시청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2문단에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로 제시되었다.
- ⑤ (가)에서 학생 1이 의류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일의 장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의 2문단에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었다.

40. [B]를 바탕으로 (가)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GMO 완전 표시제의 도입 요구가 생겨난 배경을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기사를 인용한다.
- ② GMO 완전 표시제의 개념도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정의와 예시의 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개념을 설명한다.
- ③ GMO 완전 표시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를 알려 주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누어 설명한다.
- ④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그에 앞서 GMO 표시제가 변화되어 온 과정을 소개한다.
- ⑤ GMO 완전 표시제의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화법과 작문:작문 — 문항 유사

- 작문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됨
- 조언을 토대로 끝부분 쓰기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됨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손 글씨 쓰기의 개념을 정의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가 일상화된 배경을 언급해야겠어. ㉡
- 손 글씨 쓰기와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의 차이를 예를 활용하여 설명해야겠어. ㉢
-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보다 손 글씨 쓰기의 속도가 느린 데서 오는 효과를 설명해야겠어. ㉣
- 최근에 주목받는 손 글씨 쓰기의 효과를 언급해야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2021 이감 시즌1 1차

42. 다음은 (가)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우리나라의 생물 자원 유출 사례를 제시해야겠어.
- ㉡ 생물 주권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해야겠어.
- ㉢ 최근 생물 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를 밝혀야겠어.
- ㉣ 생물 자원의 국외 반출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를 소개해야겠어.
- ㉤ 생물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함을 알려 줘야겠어.

① ㉠ ② ㉡ ③ ㉢ ④ ㉣ ⑤ ㉤

문항 유사

44. 다음은 초고를 읽은 교지 편집부 담당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하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 ① 손 글씨 쓰기의 다양한 효과를 정확히 알고 이를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쓰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② 손 글씨 쓰기의 과정, 장점과 한계, 정서적 효과를 통해 손 글씨 쓰기가 동전의 양면과 같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③ 손 글씨 쓰기가 우리의 뇌, 이해,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손 글씨 쓰기의 횟수를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 ④ 손 글씨 쓰기는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효과를 주기에, 그 가치는 시대가 변해도 늘 별처럼 빛날 것이다.
- ⑤ 손 글씨 쓰기를 통해 뇌의 다양한 영역 활성화, 이해도 향상, 정서적 효과라는 세 가지 빛깔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3. <보기>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친구의 조언: 글의 끝부분에서는 생물 주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생물 주권의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어.

- ① 생물 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이 인정되면서 생물 자원 보유국들은 자국의 생물 자원 보호에 더욱 힘쓰게 되었다. 이처럼 생물 주권은 생물 자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 ② 바이오산업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예고하기 있기에 향후 생물 자원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욱 많은 생물 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③ 생물 자원의 잠재적 부가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생물 주권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 연구하는 학계의 노력과 생물 자원의 보호를 위한 환경 단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④ 해외 각국들은 다양한 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한 물질들을 개발하여 상업화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언어와 매체: 언어 — 문항 유사

- 용언의 활용형을 파악하는 문제를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룸
-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파악하는 문제를 동일 출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보, 즉 '활용 정보'를 통하여 ㉠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칙 활용 용언 중 동사 '벗다'는 '벗어, 벗으니, 벗는'처럼 활용하므로 '웃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고, 불규칙 활용 용언 중 '짓다'는 '지어, 지으니, 짓는'처럼 활용하므로 '긋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다.

35.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르다 - 잡그다
- ② 흐르다 - 푸르다
- ③ 뒤집다 - 꺼입다
- ④ 붙잡다 - 정답다
- ⑤ 깨문다 - 엇듣다

문항 유사

한편 용언이 활용할 때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 그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다'의 활용 정보는 '자[자], 자니, 자니'처럼 제시되는데 이때의 활용형 '자'는 '자다'의 어간 '자'와 어미 '다'의 결합할 때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나 '자'로 실현된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좋다'는 '좋아[조:아], 좋으니[조:으니]'가 활용 정보에 제시되는데 이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즉 활용 정보에 나타나는 활용형 '자'와 '좋아'의 표기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6.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어사전의 표제어와 활용 정보

㉠ 서다	활용	서, 서니 ...
㉡ 끄다	활용	끄, 끄니 ...
㉢ 풀다	활용	풀어, 푸니 ...
㉣ 쌓다	활용	쌓아, 쌓으니, 쌓는 ...
㉤ 믿다	활용	믿어, 믿으니, 믿는 ...

- ①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③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⑤ ㉤: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2021 이감 시즌2 2차 2021 이감 시즌4 3차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용언 중에는 기본형의 형태가 동일 하더라도 그 품사와 활용형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 밑줄 친 단어 쌍들에 대해 설명해 보자.

- ㉠ 팔이 안으로 굴다.
- ㉡ 불에 고구마를 굽다.
- ㉢ 병이 씻은 듯이 낮다.
- ㉣ 둘 중에 이게 더 낮다.
- ㉤ 친구에게 선물을 받다.
- ㉥ 차가 다리 난간을 받다.
- ㉦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르다.
- ㉧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다.
- ㉨ 아이가 스스로 눈을 감다.
- ㉩ 오래된 시계의 태엽을 감다.

㉠과 ㉡의 두 단어는 품사와 활용 형태가 모두 다르다.

㉡과 ㉢의 두 단어는 품사와 활용 형태가 모두 다르다.

㉢과 ㉣의 두 단어는 품사와 활용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

㉣과 ㉤의 두 단어는 품사는 동일하지만, 활용 형태는 다르다.

㉥과 ㉦의 두 단어는 품사는 다르지만, 활용 형태는 동일하다.

앞서 살핀 현상들은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가 발음에는 나타 나지만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와 달리, 표기에 반영되는 음운 변동들도 있다. ㉠ 'ㄹ' 탈락, ㉡ 'ㄹ' 탈락, ㉢ 'ㅏ/ㅑ' 탈락 등이 그것이다. 'ㄹ' 탈락은 'ㄹ'로 끝나는 어근이 다른 어근이나 접사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형성할 때나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ㄹ', '느', '니', 'ㄹ니다', 'ㄹ시', 'ㄹ세요', 'ㄹ오' 등의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난다. 'ㄹ' 탈락은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나타난다. 'ㅏ/ㅑ' 탈락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어간과 어미에 'ㅏ/ㅑ'가 동시에 나타날 때 발생한다. '가+ㅏ+아라'가 '가라'가 되는 것이 그 예이다.

36. 윗글의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난 문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 집에 돌아온 그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 ㉡ 어제 바느질을 하다가 보니 손이 무척 아팠어.
- ㉢ 지금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노니 불을 켜 주세요.
- ㉣ 그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건네지 말고 제게 파세요.
- ㉤ 그는 우는 아이와 함께 가게에 가서 물건값을 지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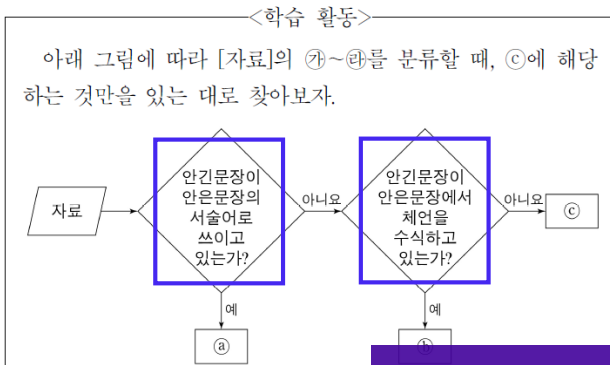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언어와 매체: 언어 — 문항 유사

- 문장에서 안긴문장의 쓰임에 대해 파악하는 문제를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룸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자료]

- ㉠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다.
 ㉡ 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꽃이 피었다.
 ㉢ 나는 동생이 오기 전에 학교에 갔다.
 ㉣ 내 동생은 누구보다 마음씨가 착하다.

-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문항 유사

2021 이감 시즌4 4차 2021 이감 ON 2차

37. <보기>의 ㉠~㉤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내가 오늘 만난 동생은 학생이 아니다.
 ㉡ 이 그릇은 쌀밥을 배불리 먹기에 좋다.
 ㉢ 이 동네에 사는 아이가 높이 정말 크다.
 ㉣ 밤을 꼴딱 샌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 방금 도착한 아이들은 신이 났도록 돌아다녔다.

- ① ㉠과 ㉢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② ㉠과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③ ㉡과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④ ㉡과 ㉤에는 용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⑤ ㉢과 ㉤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복잡할 때에는 홑문장보다 겹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때 겹문장은 다시 다른 문장 속에 안겨 여러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 문장을 설명해 보자.

- ㉠ 경찰관은 어린이가 사고 없이 길을 건너도록 도왔다.
 ㉡ 할아버지는 맑고 차가운 물에 두 발을 모두 담그셨다.
 ㉢ 책을 읽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다고 동생이 투덜대었다.
 ㉣ 그는 자신이 예전에 소설가이자 교수였음을 자랑하였다.
 ㉤ 물건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아이의 얼굴이 새빨갰다.

- ① ㉠: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겨 주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②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겨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③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겨 인용절로 쓰이고 있다.
 ④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겨 주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⑤ ㉤: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겨 부속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언어와 매체: 언어 — 문항 유사

- 인칭 대명사가 지시하는 바와 관련된 문제를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룸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 <보기>의 ㉑~㉓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후배 부원 둘과 선배 부원의 대화 장면)

선 배: ㉑ 학교에서 열린 회의는 잘 끝났니?

후배 1: 네. 조금 전에 끝났어요.

선 배: 수고했어. ㉒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 안에 대해 뭐라고 해?

후배 2: 지난번에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 예산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선 배: ㉓ 우리가 제안한 예산안이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었을 텐데.

후배 1: 그런데 학교에서는 ㉔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동아리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㉕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선 배: ㉖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고생했어. 지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볼게.

후배 2: 네. 그럼 ㉗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을게요.

- ① ㉑과 ㉒은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군.
- ② ㉓에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군.
- ③ ㉔은 뒤에 있는 '동아리'를 가리키는 말이군.
- ④ ㉕은 ㉒의 '학교'와 ㉓의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이군.
- ⑤ ㉖은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기 위해 쓰는 말이군.

2021 이감 시즌1 2차 2021 이감 ON 2차

36.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의 ㉑~㉓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효주: 서준아, ㉑ 우리 같이 등산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다.

서준: 그러게, ㉒ 너 바쁘다고 해서 못 올 줄 알았는데.

효주: 동생들 숙제 도와주려 했는데 ㉓ 저희끼리 할 수 있대.

서준: 잘됐다. 어, 저기 ㉔ 저분은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㉕ 여기에서 다 뵈네요.

선생님: 어, 오랜만이구나. ㉖ 너희도 등산 온 거니? 선생님도 ㉗ 이곳이 유명하다기에 가족들과 함께 와 봤지.

효주: 네, ㉘ 저희도 이제 막 왔어요. 아버지께서 ㉙ 당신의 건강은 다 등산 덕분이라고 하셔서요.

선생님: 잘 생각했구나. 건강이 중요하지. 그럼 ㉚ 우리 먼저 가 볼 테니 나중에 학교에서 보자.

- ① ㉑는 듣는 이를 포함하는 대명사이고, ㉒는 듣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 대명사이다.
- ② ㉒와 ㉓는 말하는 이가 높여야 할 대상에는 사용할 수 없는 2인칭 대명사이다.
- ③ ㉓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제외한 제3의 인물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고, ㉔는 말하는 이를 포함하는 대명사이다.
- ④ ㉕은 각각 주어인 '선생님'과 '아버지'를 되풀이하여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3인칭 대명사이다.
- ⑤ ㉖와 ㉗은 모두 지시 대명사로, 두 대명사가 가리키는 장소는 동일하다.

먼저, 담화에서는 '화시(話示)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화시란 언어적 요소가 담화 맥락 속에서 인칭, 사물, 장소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에서는 '나, 우리' 등의 인칭 대명사가 인칭을 나타내며, '이, 그, 저' 등의 지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가 사물 및 장소 등을 나타낸다. 인칭 대명사는 화자를 가리키는 1인칭,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3자를 가리키는 3인칭으로 나뉘는데, 인칭뿐만 아니라 단수와 복수, 존대 여부를 고려하여 쓰인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㉑~㉓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명우: 지희야, ㉑ 너 선생님께서 저번 주에 내 주신 국어 숙제 했어? 오늘까지 제출해야 하는 거 말이야.

지희: (놀라며) ㉒ 그러고 보니 국어 숙제가 있었네!

명우: 지금부터 하면 되지. 나도 지금 하는 중이야. ㉓ 반 애들도 숙제를 다 하지 않은 거 같더라고.

지희: ㉔ 설마 숙제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교실 뒤 상자를 가리키며) ㉕ 제출은 저 상자에 하는 거였지?

명우: ㉖ 응? 늘 선생님께 직접 드렸잖아. (잠시 생각 후)

㉗ 아, 오늘은 선생님께서 출장 때문에 학교에 안 오셨지.

언어와 매체: 언어 — 문항 유사

- 다의어, 동음이의어와 관련된 문제를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룸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9.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된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신체 관련 어휘는 ㉠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가 ㉡ **주변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어요. 이때 ㉢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이러한 의미 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코¹

-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
-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코²

-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개의 배열.

- ① ㉠: 물은 **코**가 옷에 묻어 휴지로 **닦았다**.
 ② ㉠: 어부가 쳐 놓은 어망의 **코**가 **잡혀**졌다.
 ③ ㉡: 코끼리는 긴 **코**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④ ㉡: 동생이 갑자기 **코**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
 ⑤ ㉢: 어머니께서 목도리를 한 **코**씩 떠 **나가**셨다.

문항 유사

2021 이감 시즌2 1차 2021 이감 ON 3차

37.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다의어는 각각의 의미에 따라 대응되는 유의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옷이 잘 받는다.'에서 '받다'의 유의어는 '어울리다'이지만 '고기가 몸에 잘 받는다.'에서 '받다'의 유의어는 '맞다'이다.

단어	예문	유의어
가다	㉠	작동하다
	그 옷에는 주름이 잘 간다 .	㉡
	회의가 엉뚱한 쪽으로 간다 .	㉢

	㉠	㉡	㉢
㉠	이 가는 전기로환 간다 .	박히다	길어지다
㉡	나는 아침에 서둘러 간다 .	지다	쏟리다
㉢	이제가 약간 느리게 간다 .	잡히다	열리다
㉣	동사업에는 품이 많이 간다 .	늘어나다	끝나다
㉤	그의 코를 치는 아직 잘 간다 .	생기다	흐르다

39. <보기>의 ㉡와 ㉣에 들어갈 예시를 '자료'에서 찾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국어사전에서 **다의어**는 하나의 표제어로 처리하고, **동음이의어**는 별개의 표제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밑줄 친 단어들의 쌍이 사전에 어떻게 수록되어 있을지 말해 볼까요?

[자료]

- ㉠ 나는 사람을 **풀어** 수소문을 하였다.
 그는 굳은 얼굴을 **풀고** 미소를 지었다.
 ㉡ 삼촌은 돼지를 **쳐서** 생계를 유지한다.
 학교 주변에는 하숙을 **치는** 집이 많다.
 ㉢ 어린이는 생선 가시를 **말라** 버렸다.
 동생은 간식으로 빵에 잼을 **발라** 먹었다.
 ㉣ 그 학생은 선생님께 야단을 **맞고** 말았다.
 선수가 쓴 화살은 과녁에 정확하게 **맞았다**.

학 생: ㉡와 달리, ㉣는 국어사전에서 별개의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겠군요.

언어와 매체:매체 — 주제 및 문항 유사

-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주제와 비슷한 농촌 관광 활성화를 다룸
- 인터넷 신문 : 인터넷 기사의 매체 형식을 다룸
- 기사의 정보 구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군민신문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폐교가 지역 관광 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2021.06.02. 06:53:01 최초 작성 / 2021.06.03. 08:21:10 수정
△△군민신문 이◇◇ 기자

좋아요(213) 싫어요(3) SNS에 공유 스크랩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증가... 인근 주민들, “유휴 시설로 방치되어 골칫거리”
-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지역 명소 ①] ☆☆마을... 다섯 가지 매력이 넘치는 어린이 세상

댓글

방랑자: 가족 여행으로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들이: 맞아요. 우리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평도 즐기고요.
방랑자: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네요.

4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기자는 취재한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취재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고 그중 특정 내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한다. 따라서 기사를 분석할 때에는 기사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를 배치하는 방식, 시각 자료의 이미지 활용 방식 등 정보가 제시되는 양상도 살펴봐야 한다.

- 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에 이어 시각 자료를 배치한 것이겠군.
- ② 지역 관광객의 증가 추세를 부각하기 위해 △△군 관광객 수 추이를 제시할 때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겠군.
- ③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이미지로 강조하여 제시한 것이겠군.
- ④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 관광객 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한 것이겠군.
- ⑤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기 위해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겠군.

2021 이감 시즌4 5차

뉴스 | 연예 | 스포츠 | 날씨

농업 소득과 관광 수익을 함께, 일석이조의 경관 농업
기사입력 2021.5.10.11:39 최종수정 2021.5.10.14:15

관련 기사 모아 보기 [더 보기]

- 이번 연휴 나들이 어디? 아름다운 농촌 10곳
- 정부, 경관 농업 지원 통해 농촌 살리기 나서

전체 댓글 37

L.sung**** 작물들이 참 예쁘네요. 부모님 모시고 관광하러 갈 곳을 찾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가야겠어요.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매체 자료는 생산자의 관점과 가치에 따라 재구성된다. 같은 대상이나 사건이라도 생산자의 관점과 가치에 따라 구성에 선택되는 정보가 달라지며 다루는 정보의 비중이 달라진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그 안에 담긴 생산자의 관점과 가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생산자가 정보를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생산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타당한지, 언급하고 있는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며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 ① (가)에서 ‘국민 농촌 관광 실태 조사’의 출처가 관련 정부 기관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농촌 관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는 신뢰할 만하군.
- ② (가)에서 언급한 ‘농촌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관광객들의 농촌 관광에 대한 만족도 하락을 보여 주므로 농촌 관광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타당하군.
- ③ (나)에서 경관 농업에 긍정적인 ‘인터뷰’를 제시한 것은 경관 농업이 농촌의 위기 극복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선택하여 제시한 정보로 해석할 수 있군.
- ④ (나)에서 ‘관련 기사 모아 보기’를 제시하여 경관 농업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룬 것은, 생산자가 정보를 공정하게 다룬 사례로 볼 수 있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경관 농업’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그 비중이 다른 것은, 같은 대상이어도 매체 자료 생산자의 관점과 가치에 따라 다루는 비중이 달라지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군.

문항 유사

언어와 매체:매체 — 문항 유사

- 매체 자료의 특징을 바탕으로 언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
- 광고 간의 표현적 특징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44.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진행자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묻고 있다.
- ㉡ ㉡: 명사로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있다.
- ㉢ ㉢: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뉴스의 중심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 ㉣: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뉴스의 핵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 ㉤: 뉴스 내용에 따른 제품 선택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2021 이감 시즌2 2차

42. (가)~(다)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비격식적인 표현을 써서 광고 수용자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 ㉡: 명사형 어미로 끝을 맺어 광고의 내용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제시하였다.
- ㉢ ㉢: 서술어를 먼저 이야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 ㉣ ㉣: 명령의 표현을 활용하여 수용자에게 광고가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 특정 행동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 ㉤ ㉤: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잘리는 대상인 나무에 초점을 맞추어 광고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45. (가)를 본 학생이 (나)를 활용하여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항 유사

학습 활동 이미지, 문구 등을 활용한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집지에 실린 두 개의 인쇄 광고 비교하기

자료



- ㉠ (나)는 바람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의 형태로 문구를 배치하여 제품의 쓰임새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 ㉡ '자료'는 기존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제품이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구매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 '자료'는 (나)와 달리 제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이미지와 문구로 표시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 ㉣ (나)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자료'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제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 ㉤ (나)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자료'는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에 나타난 '광고의 설득 전략'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에서 '다양한 볼거리, 신나는 체험거리, 풍성한 먹거리'를 언급한 것은 축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이겠군.
- ㉡ (나)에서 '육상 금메달리스트 □□□'를 등장시킨 것은 유명인을 동원해 광고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이겠군.
- ㉢ (나)에서 '활력을 느끼고 싶으신가요?'라고 말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수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이겠군.
- ㉣ (다)에서 '나무를 죽이는 컵? 나무를 살리는 컵!'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인상 깊은 문구로 수용자의 감각을 자극하려는 의도이겠군.
- ㉤ (다)에서 1회용 종이컵과 머그컵 각각의 그림자에 잘린 나무의 단면과 잎이 울창한 나무를 제시한 것은 기발한 발상을 통해 수용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려는 의도이겠군.

2022학년도 이감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문을 보는 방법부터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는 연습까지!
평가원의 출제 코드를 읽는 안정된 실력을 완성합니다.

36주간의 커리큘럼

